공학윤리와 토론 12주차 동영상 강의 요약문

정보통신공학과 12191821 정재승

세계화 시대의 엔지니어

다른 나라에서도 공학 활동을 하는 것이다. 소련이 붕괴하고 미국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자유 무역이 성장한다. 자유 무역과 함께 기술이 개발되고 성장하였다.

경계 넘기의 문제

국경을 넘어가는 일이 빈번해졌다. 다른 나라로 가면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한다. 자본과 기술이 높은 나라(home country)에서 낮은 나라(host country)로 가면서 생기는 문제들이다. 이해관계가 충돌하게 되는데 home country가 유리하게 조정되게 된다.

해결책

절대주의적 해결책은 home country에서 host country에게 우리의 방식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장점은 선진국의 좋은 관습 등을 개발도상국에 가져갈 수 있으며, 단점은 선진국이 마음대로 활동하는 것, 즉 제국주의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이렇게 되면 host country의 경제적 여건과 기존의 관습과 문화 등을 무시하게 되면서 문제가 생긴다. 반대로 상대주의적 해결책은 host country에 하던 것을 그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이때 개발도상국에서의 안 좋은 관습 등까지 따라갈 수 있다. 이때 도덕적 방종을 부를 수 있다. 두 나라의 방식을 조화롭게 섞을 수 있어야 한다. 도덕적 엄격은 선진국에서 하던 것을 그대로 가져간다는 것에서 절대주의적 해결책은 좋을 수 있다. 하지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관습의 차이가 존재하는데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창의적 중도 해결책

위의 단점들을 피하고 창의적 중도 해결책을 찾아야한다. 도덕적 엄격주의와 절대주의적 해결책을 피한다. 너무 엄격주의에 집착하면 개발이 덜 된 개발도상국에서 문화와 관습을 비난하는 태도를 취하게 된다. 그리고 도덕적 방종주의와 상대주의적 해결책을 피한다. 뇌물 등을 주고받고 불법을 일으켜도 처벌을 받지 않는 등의 방종주의를 보여서는 안 된다. 따라서 문화를 초월하는 보편적 기준을 호소(마련)하고 이 기준을 만들 때는 양측이 이해할 수 있도록 호소력이 있도록 해야 한다(이 기준을 직관적인 호소력이 있게 적용한다).

활용할 수 있는 윤리적 자원들

이해관계가 충돌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윤리적 자원(황금률, 보편적 인권, 인간의 기본적 복지 증진, 공학 협회의 윤리 현장들)이 있다. 황금률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남에게 대접하라는 것이다. 이때 주관적으로만 판단하지 않고 상대와 소통을 해서 정말 상대가 받아드릴 수 있는 생각을 하도록 한다. 즉 직관적 호소력이 있어야 한다. 어떠한 경우라도 인간이라면 모두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인권(인간의 생명, 자유, 생각의 자유, 교육 등)을 존중하여 이해관계를 형성한다. 인간의 기본적 복지는 곧 행복이다. 인간의 기본적 복지는 증진시켜야 한다. 공학 협회에서 미리 정한 윤리적 행동을 따라야 한다.

경제적 후진국에서의 문제들 - 착취, 뇌물 혹은 과도한 선물, 강탈 및 촌지(접대하는 것), 족벌주의, 온정주의, 세금 탈루

족벌주의는 가족들 위주로 고용하고 이익을 주변인에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온정주의?

온정주의라는 것은 부모처럼 간섭한다는 것이다. 이 온정주의의 세 단계는 다음과 같다. 먼저 상대방의 능력을 폄하하고 그후로 그들에게 간섭을 하고 이 간섭이 심해져 모든 판단에 개입하고 권위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다. 이는 강한 온정주의이고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정도의 개입이라면 소통의 측면에서 좋은 측면도 있으며 이를 약한 온정주의라고 한다. 문제가 심각하여 강한 온정주의가 필요로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약한 온정주의에 머물러서 상대방과 소통하고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